

유아사 야스오(湯淺泰雄)의 經絡學說에 對한 小考

송석모 · 이상룡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 교실

A Study on Yuasa Yasuo's Meridian Theory

Seok-Mo Song, Sang-Ryong Lee

Dep. of Meridian and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osu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 This paper introduces a unique meridian theory developed by Japanese philosopher Yuasa Yasuo.

Method : His meridian theory is well organized in his philosophy, so we systematically review his major works and philosophy from which we systematize his meridian theory. And we critically examine it with current studies.

Results and Conclusions : He tried to overcome Cartesian mind-body dualism by Eastern thought and newly developing neurophysiology. He articulated "body scheme" from human information systems, primarily nervous system and meridian system, which regulate physiological functions. It consists of 1st external sensory motor circuit, 2nd circuit of coenesthesia, 3rd emotion-instinct circuit and 4th circuit of unconscious quasi-body. Meridian system is the 4th circuit, through which he thought various affect(emotion) flows. Based on the relationship of emotion-autonomic nervous system-meridian-skin, he tried to confirm the existence of meridian system. His theory illuminates mind-body problem and emotion-meridian relationship in 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

Key Words : Yuasa Yasuo, Meridian, Emotion, Information System, Mind-Body Problem, Philosophy of Medicine

1. 서 론

韓醫學은 情緒의 生理病理的 作用을 중시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鍼灸治療에 있어서도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러한 정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서를 經絡學的인 입장에서 접근한 학문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대 일본의 철학자 湯淺泰雄(Yuasa Yasuo(1925-2005); 이하 '유아사')으로 간칭: 도쿄 대학에서 일본사, 윤리학, 경제학을 전공. 야마나시 대학, 오사카 대학, 쓰쿠바 대학, 오비린 대학 교수 역임. 주 연구분야는 일본역사, 철학, 심층심리학, 심신론. 50권이 넘는 저서와 300여 편의 논문을 발표. 1999년부터 현재까지 白亞書房에서 『湯淺泰雄全集』간행 중. 대표작 - 『倫理學と存在論の關係について』, 『宗教經驗と深層心理』, 『近代日本の哲學と實存思想』, 『ユングと東洋』, 『氣・修行・身体』, 『身体の宇宙性』, 『氣の科學』¹⁾은 정서와 경락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보기 드문 학자이다. 그는 東洋的心身論이라는 독특한 분야를 발전시키고 동양의학

· 교신저자: 이상룡,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333번지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 교실
Tel. 062-290-1563, Fax. 062-290-1563
E-mail: lisr@korea.com

· 본 연구는 2010년 우석대학교 학술연구지원을 받아서 진행되었음.
· 투고 : 2010/10/28 심사 : 2010/11/30 채택 : 2010/12/09

의 경락학설을 자신의 철학체계에 유기적으로 통합시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心身關係論이 의 철학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그의 경락학설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은 유아사의 심신론을 바탕으로 경락에 대한 그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유아사의 심신론

유아사가 말하는 ‘심신론’이란 마음과 신체에 관한 이론적 고찰이다. 그런데 동아시아 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심신문제(mind-body problem)’에 대해 관심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수양과 실천과 같은 체험 자체를 이론과 지식보다 우선하는 사상적 풍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현대철학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심신론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R. Descartes이다²⁾. 데카르트는 마음과 몸이 아주 상이한 두 종류의 實體라고 주장한다. 마음은 非物質的 실체이며, 意識을 그것의 본질적 속성으로 가진다. 반면 신체는 물질적 실체로서 延長性을 본질적 속성으로 가진다. 그가 말하는 실체는 다른 한쪽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自己原因(sui generis)”을 가진다. 따라서 마음이나 신체는 다른 한편이 없더라도 존재하는 것이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종류의 이원론을 “實體 二元論(substance dualism)”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이원론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는 마음이 신체에 대해 작용할 수 있고, 신체도 마음에 대해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相互作用論者(interactionist)”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중대한 난점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실체가 어떻게 서로 작용할 수 있는가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순수하게 심적이고 비물질적인 실체가 순수하게 물질적이고 전혀 심적이지 않는 실체와 상호작용하는 기전을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그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정신과 물질을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근대의 철학과 경험과학이 독립되어 무관하게 발전하도록 방향지었다고 평가한다^{3,4)}.

유아사는 데카르트가 松科腺(pineal gland)을 통해 심신이 상호작용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의 심신론을 엄격한 이분법(dichotomy)이라고 비판한다³⁾. 그가 데카르트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철학적인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그의 철학적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심리철학적으로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을 극복하고, 둘째로 그로부터 시작된 철학과 경험과학의 분리를 다시 통합하여 셋째, 데카르트가 길을 연 객관주의적 과학과 대비되는 주관주의적 과학을 수립하는 것이다. 유아사에게 이 세 가지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동양의학, 동양사상, 심층심리학, 신과학 운동 등을 학문적 자산으로 삼은 것이다. 이 세 가지 목표를 관통하는 것이 ‘氣’개념이다. 유아사는 기의 연구를 통해 物心二元論의 패러다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³⁾. 그가 말하는 기의 연구는 學際的인(interdisciplinary) 것으로서 동양의학, 철학, 종교학, 심층심리학, 심신의학, 생리학 등 제반학문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Nakatomo는 유아사의 심신론에 대해 인식론적으로 이원론이면서 존재론적으로 非이원론이라고 평가한다⁵⁾. 유아사에게 심신합일은 수양의 실천을 통한 실존적 변형(existential transformation)으로 얻어지는 결과물이라는 의미에서 인식론적으로 이원론이다. 심신의 이원성은 수양을 통해 극복되는 순간 사라지므로 이 이원성은 인식론적으로 잠정적이고 일시적이다. 또한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존재론적으로 選言的 이원론(disjunctive dualism)이어서 심신간의 어떠한 상호작용도 허용치 않지만 유아사의 이원론은 기를 매개로한 相關的 이원론(correlative dualism)이다. 그런데 심신 간의 원래 관계는 ‘본질상’ 비이원적이기 때문에 그의 심신론

은 존재론적으로 비이원론이다. 그가 주장하는 심신간의 인식론적 이원성과 존재론적 비이원성은 서로를 전제하고 있다.

2. 인체의 정보체계

유아사는 신경은 신체의 여러 가지 기관이 가진 생리적 기능을 제어하며 지배하고 있는 일종의 정보체계이므로 신체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신경계의 구조에 의거하여 생각하여야 된다고 말한다⁶⁾. 그는 신경계를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와 말초신경계(peripheral nervous system)로 나누는 교과서적인 분류를 전제로 자신의 독자적인 정보체계 즉 ‘身體圖式(body scheme)’ 학설을 개진한다^{6,7)}. 이 신체도식은 그가 프랑스의 철학자 H. Bergson의 ‘運動圖式’과 M. Merleau-Ponty의 ‘身體圖式’으로부터 차용한 개념이다. 유아사의 신체도식은 신경생리학의 발견을 기본으로 하여, 이 두 철학자들의 성과와 동양사상·한의학·심층심리학적 내용을 결합하여 구성해낸 것이다. 신체도식은 네 개의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회로들은 第1外界感覺運動回路(the external sensory-motor circuit), 第2全身內部感覺回路(the circuit of coenesthesia), 第3情動-本能回路(the emotion-instinct circuit)와 第4無意識的 準身體回路이다. 이 중 전신내부감각회로는 運動感覺回路(the circuit of kinesthesia)와 體性內部感覺回路(the circuit of somesthesia)를 하위 회로로 가지고 있고, 네 번째 무의식적 준신체회로가 한의학의 경락체계에 해당한다.

유아사의 신체도식 중 제1회로와 제2회로는 생리학의 감각의 기능적 분류에 기초하고 있다. 생리학에서는 자극원(stimuli source)과 수용기(receptor)의 위치에 기초를 두고 수용기의 종류를 구분한다. 신체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용기를 외수용기(exteroceptor)라고 하고 이 수용기를 통한 감각을 외수용성 감각(exteroceptive sense)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시각(vision), 청각(hearing), 후각

(smell), 압각(pressure sense), 촉각(touch), 온도감각(thermal sense)이 속한다. 신체 내부의 장기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용기는 내수용기(interoceptor)라고 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감각을 내수용성 감각(interoceptive sense)이라고 부른다. 내수용성 감각에는 근육, 건, 관절 및 내이(internal ear) 등 고유수용기(proprioceptor)에서 오는 자극을 통해 몸의 운동과 자세를 알려주는 고유수용감각(proprioceptive sense)과 호흡기관, 소화기관 및 방광 등의 근육벽에 위치한 내장감각수용기(visceroceptor)에서 오는 자극을 통한 내장감각(visceral sense)이 있다⁸⁾.

그가 말하는 제1회로는 외수용성 감각과, 제2회로는 내수용성 감각과 관련이 깊다. 제1회로는 신체와 외계의 관계에 관한 정보체계이고 제2회로는 신체의 상태, 즉 신체 그 자체에 관한 내부 정보장치이다. 그가 말하는 전신내부감각은 생리학의 내감수성 감각에 해당한다. 이 회로는 두 개의 하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운동감각회로(circuit of kinesthesia)’이고 하나는 ‘체성내부감각회로(circuit of somesthesia)’이다. 내감수성 감각은 체성감각(somatic sense)과 내장감각(splanchnic sense)으로 구분되고, 체성감각은 다시 촉각, 고유감각, 통각(nociception), 온도감각으로 나뉘는데 그의 체성내부감각은 생리학의 내장감각에 그대로 해당되고, 운동감각회로는 체성감각 중에서 고유감각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운동감각회로는 제1회로인 외계감각운동회로를 지지하고 있는 정보기계이다. 대뇌피질에서 말단의 운동기관인 수족으로 운동신경을 통해 명령을 보내면 근육이나 인대 등에는 운동감각신경이 구비되어 있어 수족의 상태를 중추에서 뇌로 알려준다. 따라서 운동신경이 원심성 회로라면 운동감각신경은 구심성 회로이다. 체성내부감각회로는 신체의 상태에 관한 내부정보의 체계이다. 이 체계에는 피부감각, 심부감각, 평형감각, 내장감각 등이 있는데 유아사는 주로 내장감각에 주목하고 있다. 내장감각신경은 구심성 회

로이다. 운동감각이 의식의 주변부라고 하면 내장 감각은 더욱 깊이 배경에 있는 막연하고 어두운 의식의 저변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정보체계는 자율신경과 관계된 회로이다. 자율신경은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기(폐), 순환기(심장), 소화기(위장) 같은 내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이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sympathetic nerve)과 부교감신경(parasympathetic nerve)으로 구분된다. 이 두 신경계가 서로 긴장과 이완의 균형을 조절함으로써 내장의 활동이 정상으로 유지된다. 자율신경에도 원심성 회로와 구심성 회로가 있는데 이것은 제1회로와 제2회로처럼 별도의 신경에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자율신경을 이루는 섬유 속에 원심성의 부분과 구심성의 부분이 함께 섞여 있다. 구심성 회로는 내장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중추로 보낸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구심성 회로는 피질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은 내장의 활동이 일반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준다. 원심성 회로는 뇌가 감각기관을 통해 외계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정동적 반응(쾌 혹은 불쾌의 감정)으로 변환시켜 내장기관으로 보낸다. 이 반응이 스트레스 정보이다.

3. 무의식적 준신체 회로로서의 경락

유아사의 신체도식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베르그송의 운동도식과 메를로-퐁티의 신체도식에 큰 빛을 지고 있다. 그는 두 철학자들의 신체관에 대해 경락계와 같은 무의식적 준신체 시스템의 선구라고 평가한다. 살아있는 신체에는 객관적 신체와 다른 보이지 않은 시스템이 잠재해있다는 것이다.⁶⁾

그가 베르그송과 메를로-퐁티의 철학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그들에게서 동양의학의 신체관과 유사점을 발견하고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베르그송의 운동도식이라던가 메를로-퐁티의 신체도식은 모두 생리적 신체의 기

저에 있다고 생각되는 철학적인 假想의 개념이다. 두 철학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제 막 신경과학이 태동하던 시대였다. 그가 두 철학자의 고찰에서 얻은 영감을 경험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흥미롭게도 현재까지 발전한 최신 신경과학이 아니라 동양의학이었다. 그는 동양의학 중에서도 주로 경락에 관심을 두고 주목하였다. 그가 경락에 주목한 이유는 경락을 통해서 ‘氣’를 해명하고 싶어 하였기 때문이다. 유아사의 기에 대한 생각은 존재론적인 오류를 저지르고 있지만 어쨌든 그의 주장은 기가 물질도 아니고 심리적인 것도 아닌 제3의 실체라는 것이다. 기는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양자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가 보기에 기의 이런 매개적인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동양의학에서 전통적으로 연구해온 경락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기는 경락을 흐르는 생명체 특유의 일종의 에너지이다⁶⁾. 경락은 기의 통로로서 세 종류의 매개적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의식과 무의식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며 둘째, 신체와 마음을 매개하며 셋째, 주체와 외계가 교류하는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유아사의 신체도식을 구성하는 네 번째 회로는 경락이다. 그는 경락에 대해 ‘의식이 감지할 수 없는 무의식하의 잠재적 회로’인 ‘무의식적 준신체’라고 설명한다⁶⁾. 우리가 볼 때 그가 말하는 의식이 감지할 수 없는 ‘무의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뒤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의식은 의식 시스템(the Conscious system)과 구별되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시스템이다. 그가 무의식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는 정동(affect)은 칼 융의 심리학을 염두에 두고 쓴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가 말하는 무의식의 첫 번째 의미는 精神力動的 무의식 개념을 포함하며 정서나 동기와 강하게 연결되었다⁹⁾. 무의식의 두 번째 의미는 상당히 認知科學的인 의미로써 인지적 무의식(cognitive unconsciousness)’을 뜻한다¹⁰⁾.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고 그것의 형태, 색채, 움직임 등을 지각할 때 지각된 형태, 색채, 움직임은 의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계의 처리과정과 기전은 우리가 전혀 의식하고 있지 못하다. 일반적인 조건하에서는 경락의 생리적 기능 관한 한 역시 무의식적인 기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경락이 전신의 기혈을 운행하는 등 그 과정을 의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락의 기능은 대부분 우리의 의지나 생각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cf. 일부 道敎에서는 意念에 의한 작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유아사가 말하는 ‘준신체’란 신체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신체에만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경락이 신체적인 것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準-마음(quasi-mind)’이라든가 그가 애호하는 분석심리학 용어로 ‘準-心魂(quasi-psyche)’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경락이 신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제3의 것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신체이면서 마음이기도 한 것이라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이는 경락에 대한 그의 견해가 기에 대한 모호한 견해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기가 마음과 물질과 전혀 다른 제3의 실체인지 아니면 마음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한 것인지에 대해 그 자신이 입장을 확실히 결정하지 못하였거나 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보기에 그의 기에 대한 견해는 칼 융의 libido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융의 리비도는 신체적 에너지이면서 정신적 에너지로 변환 가능하다. 신체와 정신 사이를 변환가능한 리비도처럼 유아사는 기와 경락도 신체와 마음 사이의 轉移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4. 정동(affect)의 통로로서의 경락

유아사는 동양의학의 입장에서 근대의학이 인체를 폐쇄계(closed system)로 간주한다고 비판한다.⁶⁾ 서양근대의학은 신체를 우선 외계로부터 분리시켜

자기 완결된 폐쇄계로 이해한 후 그 구조를 각 기관으로 분해하여 그 기능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에 비하여 동양의학에서는 신체를 처음부터 외계와 연결된 개방계(open system)로 이해하고 신체와 외계 사이에 감각을 가지고 파악하기 어려운 일종의 에너지 교류, 즉 기의 흡수와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점은 한의학의 ‘體表醫學의 性格’에 대한 그의 관심과 연결된다. 그는 피부는 신체(주체)와 외계의 경계이므로 심신론의 관점에서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계된다고 생각하였다⁷⁾. 피부에서는 기의 흐름을 통해 외부와 교류하고 있고, 기는 경락을 통해 흐르고 있으므로 결국 인체는 경락을 통해 외계와 교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락에서 그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井穴’이다⁷⁾. 그는 기의 흐름은 다른 경혈에서도 조금씩 출입하고 있지만 주로 수족의 선단(끝)에 있는 정혈을 통해 외계와 교류하고 있다는 주장한다. 그가 경락을 통한 외계의 교류에 있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베르그송과 메를로-퐁티식의 잠재적 志向作用이고, 둘째는 소우주인 몸과 대우주 사이의 天人相關이다. 이 두 철학자들은 인식론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동양의학의 신체관과는 착안점이 다르다. 의학은 치료가 일차적인 목적이므로 아무래도 志向性(intentionality)과 같은 의식의 문제보다는 신체의 생리병리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동양의학에서 경락을 지향성과 관련시켜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경락의 지향성은 유아사의 독창적인 견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근대의학은 몸을 밖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객체로 본다⁶⁾. 근대의학에서는 객체인 타인의 몸을 볼 뿐이지 그 마음은 보지 않으므로 객체와 주체를 구분하고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다루는 이분법적 관점을 가진다. 한편 동양의학에서는 몸을 안쪽에서 보는 관점을 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양의학은 마음의 역할과 작용을 중시하는 오랜 전통을

발전시켜 왔고 병리에 있어서도 심리적 요인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는 환자의 심리를 중시하는 동양의학의 사고방식이 현대의 心身醫學(psychosomatic medicine)과 심층심리학의 관점과 상통한다고 평가한다⁴⁾. 그에 의하면 심신의학이 다루는 주요문제 중의 하나는 자율신경의 기능과 情動작용의 관계라는 것이다³⁾. 자율신경계와 정동작용은 이미 보았듯이 그의 신체도식 중 제3정동-본능회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제1외계감각운동회로와 제2전신내부감각회로는 그 중추가 대뇌피질에 위치하고 의식과 관계 깊으므로 심신관계의 표층구조를 이룬다. 제3회로의 자율신경계는 중추가 피질하의 뇌간에 위치하고 무의식과 관계가 깊으므로 심신관계의 기저구조를 이룬다. 심신관계의 이 두 구조들은 완전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동작용을 매개로 연락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락과 기는 대개 신체적인 생리기능과 연관되어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동이 만약 의식과 무의식을 매개한다면 정동과 경락 및 기 사이에도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인간의 심리작용을 ‘五神(魂·神·意·魄·志)’과 ‘七情(喜·怒·憂·思·悲·恐·驚)’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오신은 인지기능으로, 칠정은 정서로 분류할 수 있다¹¹⁾. 동양의학의 五臟-五志의 대응에 대해 유아사는 “정동의 갖가지 성질과 내장에 관계된 여러 가지 생리적 기능 사이에 있는 대응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한다⁴⁾. 그는 용과 심리학자로서 무의식적인 동기와 욕동(drive)을 강조하는 정신역동적 관점(the psychodynamic perspectives)에 서있기 때문에 “욕구가 잘 충족되어 있는가 어떤가를 확실히 느끼고 또한 그것을 표면화시키는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정동의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¹²⁾. 현대의학의 장기와 한의학이 말하는 오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장을 지배하는 자율신경계의 내장구심로는 제2회로의 체성감각회로를 이루고, 원심성회로는 제3회로를 구성한다. 심층심리학에서는 성적

인 충동과 같은 무의식적 욕동은 신체에서 기원한다고 보므로 그는 오장과 관계된 칠정 역시 정동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그는 칠정을 정동으로 본 것에서 더 나아가 정동을 기의 흐름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은 동양의학의 전통적 입장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많은 고전서에서는 현대의학의 心身症이나 自律神經失調症에 해당하는 질병들을 포함하여 ‘九氣’나 ‘七氣’로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氣’는 주로 정서의 장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九氣爲病”의 출전은 『內經』이다. 『素問·舉痛論』에서는 “저는 온갖 병이 기에서 생긴다는 것을 압니다. 노하면 기가 올라가고, 기뻐하면 기가 느슨해지고, 슬프면 기가 줄어들고, 두려워하면 기가 내려가고, 추우면 기가 움츠러들고, 더우면 기가 새고, 놀라면 기가 흐트러지며, 힘들면 기가 소모되고 근심하면 기가 맺힙니다.”¹³⁾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정서에 관계된 것이 여섯 가지이고, 外感에 관계된 것이 두 가지이며, 나머지 하나는 攝生에 관계된 것이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물론 정서이지만, 정서, 신체적 활동, 기후가 개념상의 구분 없이 동등하게 기의 작용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 기가 심리-생리-물리를 관통한다는 유아사의 관점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三因極一病症方論』에서는 ‘七氣’에 대해 “喜·怒·憂·思·悲·恐·驚이 있는데 [이] 일곱 가지는 각기 本臟의 발생과 손상을 따라서 병이 된다.”¹⁴⁾라고 말하고 있다. 九氣症의 대부분과 七氣症은 정서의 지나친 흥분이나 저하로 초래되는 여러 가지 증후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것들은 氣機失調에 의해 야기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정동(정서)을 기로 이해하는 유아사의 견해는 전통적인 동양의학에 의해 잘 지지된다.

최근의 한의학에서는 기를 주로 그 물질성에 의해 생각하는 추세가 현저하다^{15,16,17)}. 정동에 대한 유아사의 새로운 해석은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던 기의 심리적 측면을 재조명하는 것이며 나아가 정

서를 포함한 심리작용 일반에 대하여 기에 입각한 한의학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준다는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5. 경락의 경험적 접근

정서는 자율신경계를 통해 피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피부는 경락이 분포하는 곳이며 제4회로인 경락은 제3자율신경회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유아사는 이 정서-자율신경-경락-피부 사이에 놓여 있는 관계들을 이용하여 경락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이에 대해 심리적 측면과 생리적 측면 양 방면에서 접근해 들어간다.

그가 말하는 경락의 존재에 대한 심리적 접근이란 마음 자체의 인지적이거나 정서적 측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경락의 노선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말한다. 경락노선의 현상에는 순경 피부병 등 제3자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는 경락현상에 대한 일인칭 보고에 의한 주관적 현상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는 심리적 접근의 대표적인 예로서 ‘經絡敏感人’을 들고 있다^{36,7)}. 경락민감인은 經絡現象의 일종으로 경락현상은 경락노선을 따라 출현하는 각종 감각전도현상과 경락을 따라 출현하는 가시적인 형태상의 특수변화를 지칭한다¹⁸⁾. 이 중 전자를 특별히 ‘循經感覺傳導現象’, 줄여서 ‘순경감전현상(PSC)’이라 부른다¹⁹⁾. 경락민감인은 이 순경감전현상에 속한다. 그의 말처럼 경락민감인의 발견은 현대적 관점에서 고전적 경락학설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경락현상이 오늘날 경락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경락의 존재를 지지해주는 유력한 증거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경락민감인이 유아사의 생각처럼 경락의 심리적 속성을 나타내는 것인지는 더 검토해보아야 한다. 그가 착안하고 있는 것은 경락

민감인의 순경감전현상이 자각적인 느낌이라는 사실이다. 자각적인 느낌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現象的 意識(phenomenal consciousness)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現象的 感覺質(qualia)만으로 심리적인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대부분의 순경감전 연구는 침구 등의 외부적 자극으로 유발된 현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들이므로 ‘自發的인(spontaneous)’ 심리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락의 심리성을 주장하려면 좀 더 자발적인 경락현상의 실례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유아사는 명상훈련을 거친 수행자와 무술을 연마한 달인은 기를 감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⁶⁾. 이점과 관련해서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氣功’이다. 그는 기공의 훈련들이 경락을 흐르는 기를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락을 흐르는 기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다. 이것도 일종의 순경감전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부의 자극 없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자발적’ 순경감전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기공에 의한 순경감전현상에 관련해서 유아사가 들고 있는 근거는 두 가지이다⁷⁾. 하나는 고전문헌의 기록으로서 明代 李時珍의 『奇經八脈攷』이다. 이시진은 이 책에서 명상훈련을 쌓으면 경락에서 기가 흐르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上海中醫研究所의 조사로 靜功 이후 경락의 흐름을 느끼는 사례가 85% 이상에 달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鄭良月 등의 비판처럼 경락노선의 기공 결정설에 대한 고전문헌적 근거는 희박하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기공과학에서는 氣功入定이 순경감전을 유발할 수 있고, 순경감전의 출현율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¹⁸⁾. 이러한 종류의 보고들만 본다면 기공에 의한 순경감전현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단정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의문점들이 있다. 역사적으로 유구하다는 기공이 진정으로 순경감전을 유발한다면 어째서 그것에 관한 고전적 기록이 그렇게 드물고, 기공에 의한 순경감전현상에 대한 보고들은 최근에

와서야 폭발적으로 증가했는지를 먼저 비판적으로 평가해보아야 할 것이다.

경락에 대한 생리적 접근 중 유아사가 주목하는 것은 皮膚電氣反應이다⁷⁾. 감정은 신체적 반응(bodily responses)을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다²¹⁾. 이 반응은 자율신경계, 체성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의 변화로 인하며 반사 활동, 심혈관·피부전기·위장관·동공 활동과 같은 특정한 정신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 피부전도반응(skin conductance response)은 감각자극에 대한 피부의 표피와 진피의 水化(hydration)의 신속한 변화에 의한 것이다. 피부전기반응의 생리학적 기초는 에크린 한선(eccrine sweat gland)의 활동으로 에크린 한선은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고 교감신경은 정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피부를 전기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정서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유아사에 따르면 정서는 기의 흐름이고, 기는 경락을 통과하므로 피부전기반사를 통해 경락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경락이나 경혈의 전기적 측정은 경락이 분포한다고 알려진 피부의 특정지점들의 전기적 특성을 알려줄 뿐 경락의 존재를 증명해주지는 못한다. 게다가 현재까지 정서와 경락 간의 관계를 주제로 한 실험적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유아사는 경락이 침구의 치료 효과와 전기생리학적 측정에 의해 간접적으로만 존재와 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인지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脈管系’라고 생각하고 있다.³⁾ 경락을 既知의 해부학적 조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제3의 시스템이라고 보는 다른 학자들도 있지만¹⁸⁾ 이들은 경락을 오로지 신체적 생리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비해 유아사는 경락이 신체적이면서 동시에 심리적인 ‘준신체’라고 간주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러한 그의 경락학설엔 몇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다. 첫째, 유아사는 경락과 기를 엄격히 구분하

지 않고 있다. 어느 곳에서 기의 특성으로 거론되어지는 것들이 다른 곳에서는 경락의 특성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는 통로인 경락과 그것의 매체인 기를 경험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는 기를 경락에만 한정하고 있지만, 고전적 경락학설에서는 경락의 외부에서 운행하고 있는 기의 존재(衛氣)를 상정하고 있다. 이 위기의 존재를 유아사의 경락학설에서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4회로인 경락 이외의 신체도식의 나머지 세 회로는 모두 신경계통을 위주로 한 것이다. 그의 신체도식에서 경락계와 나머지 세 회로 간의 관계가 모호하다. 또한 유아사의 신체도식은 내분비계, 면역계 등과 같은 인체의 다른 조절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의 신체도식은 다른 시스템들을 고려한 추후의 연구에 의해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경락을 운행하는 매체인 기의 존재론적 위상에 대한 해명이 미흡하다. 심리-생리-물리적인 수준으로 변화하는 기의 구체적인 기전과 그것에 대한 철학적 분석이 더 필요하다. 다섯째, 기공에 의한 자발적 순경감전현상이 보다 확실히 입증되어야 한다. 이것이 입증되어야 경락의 심리성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섯째, 정서로 유발된 경락과 경혈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 드물다. 따라서 피부전기생리학에 의한 그의 경락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가설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일곱째, 본 논문에서는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유아사는 경락을 超科學的 現象과 관련하여 적지 않게 논하고 있다. 현재까지 초과학적 현상을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론이나 연구의 수준에 대해서 합의된 어떠한 내용도 없다. 따라서 미래에 학계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한의학에 대한 유아사의 초과학적 접근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비판은 한의학사의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다. 그의 경락학설은 고전적 경락학설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경락학설의 실제 형성사를 고려하자면 유아사를 비롯한 현대의 경락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원점부터 재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²²⁾.

III. 결 론

유아사 야스오의 경락학설은 데카르트적 심신이 원론의 극복이라는 철학적 문제의식 하에서 나온 것이며 베르그송과 메를로-퐁티의 철학, 현대 생리학, 동양의 수행전통 및 한의학이 결합된 학제적 연구의 산물이다. 우리는 그의 연구가 지닌 긍정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1. 지금까지 심신관계에 대한 한의학계의 논의는 ‘心身一如’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철학적 분석이 실종된 캐치프레이즈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 유아사의 심신론은 그 시론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적 심신론에 대한 하나의 모범적 실례라고 할 수 있다.
2. 심신론과 관계해서 그는 ‘氣의 變容’이라는 존재론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것은 칼 융의 리비도 이론을 사상적 유래로 삼지만 한의학적으로 병리, 생리적 기전의 관계 등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3. 기 혹은 경락의 매개적 기능이란 새로운 기능을 제시하였다. 유아사의 문제제기는 아직 철학적 수준에 머물지만 앞으로 한의학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4. 현재까지 무시되어 왔던 기와 경락의 심리적 측면을 재조명하였다. 종래의 연구자들은 기와 경락을 주로 물질적 수준에서 생각해왔다. 유아사는 이러한 인식상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였다.
5. 생리적 기능 시스템으로만 생각되어 오던 경락을 ‘정서의 통로’라고 주장함으로써 정서와 경락간의 관계라는 새로운 주제를 한의학에 제공하였다.

그의 경락학설은 이상과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 시론적 성격이 강하고 구체적인 분석과 입증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긍정적 측면에 못지않게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향후 우리의 접근 태도에 따라 오히려 생산적인 연구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Watanabe M. In Memoriam: Yuasa Yasuo(1925-2005). Nanzan Institute for Religion & culture Bulletin. 2006 ; 30 : 55-61.
2. 암스트롱 DM. 마음과 몸: 풀리지 않는 철학적 수수께끼.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2 : 13.
3. 湯淺泰雄. 科學技術과 精神世界. 서울 : 범양사. 1988 : 40, 122, 227, 229-30, 244-47, 259.
4. 湯淺泰雄. 몸과 우주: 東洋과 西洋. 서울 : 지식산업사. 2004 : 101, 355-81.
5. Nakatomo S. An Eastern Concept of the Body: Yuasa's Body-Scheme. In: Sheets-Johnstone M. Giving the Body Its Due. Alba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 62-3.
6. 湯淺泰雄. 氣·修行·身體. 서울 : 범양사. 1990 : 64-83, 97, 126-7, 132-3, 138, 155.
7. 湯淺泰雄. 氣: 人體가 내뿜는 에너르기. 서울 : 화계. 1991 : 51-66, 78, 80, 83-7.
8. 함기선 등. 신경생리학. 서울 : 현문사. 1997 : 100-1.
9. Weinberger J, Weiss J. 무의식에 대한 정신분석적 개념과 인지적 개념: Stein DJ. 인지과학과 무의식. 서울 : 하나의학사. 2002 : 56.
10. 조지프 르두. 느끼는 뇌. 서울 : 학지사. 2006 : 39-47.
11. 李如輝. 發生臟象學.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3 : 288.
12. 湯淺泰雄. 身體: 東洋의 心身論의 試圖. 서울 :

- 박영사. 1992 : 188-90.
13. 未詳. 素問. 中華醫書集成 第1冊.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1998 : 42.
14. 陳言. 三因極一病症方論. 中華醫書集成 第22冊.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1998 : 79.
15. 김완희, 김광중. 한의학의 형성과 체계. 서울 : 중문출판사. 1990.
16. 신순식 등. 氣의 한의학적 연구. 서울 : 한국한의학연구원. 2000.
17. 안규석, 지규용. 기에 대한 한의학적 이해 : 김교빈, 박석준 등. 동양철학과 한의학. 서울 : 아카넷. 2003.
18. 王啓才, 高俊雄. 經絡的研究及臨床應用.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1998 : 72.
19. 肖少卿. 中國鍼灸學史. 銀川 : 寧夏人民出版社. 1997 : 632.
20. 鄭良月. 中國鍼灸經絡通鑑. 青島 : 青島出版社. 2004 : 3.
21. Hamm AO et al. Motivational Organization of Emotions: Autonomic Changes, Cortical Responses, and Reflex Modulation. In: Davidson RJ et al. Handbook of Affective Science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187-211.
22. 孫廣寅 등. 中醫基礎理論難點解釋. 北京 :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1 : 194-6.
23. 黃龍祥.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 법인문화사. 2005.